

1 개요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는 조천읍 선흘리 안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나주 제민창의 여신이 제주 사람을 따라와 그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생업을 돌보는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순흥 안씨 삼형제가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각기 다른 마을에서 살았다. 조천리에 정착한 안씨 선주는 배를 많이 가진 부자였다. 제주에 칠년대한이 들자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안씨 선주는 돈을 가지고 쌀을 구하러 육지로 떠난다. 수소문 끝에 나주 기민창[濟民倉]의 묵은 쌀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 쌀을 산다. 쌀을 배에 가득 싣고 출항하려고 할 때 아가씨가 배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배 안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제주 가까운 곳에 이를 때 광풍이 일어 배 밑창에 구멍이 생기면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다. 안씨 선주는 하늘에 구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파선을 면한다. 배 밑창을 확인해 보니 큰 뱀이 꼬아리를 틀어 구멍을 막고 있었다. 무사히 조천포구에 도착하자 안씨선주는 뱀을 집으로 모시려 한다. 뱀이 안씨선주의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거처하기 마땅치 않아 조천포구 안쪽 '새룻알'의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안씨 선주의 꿈에 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여 어부와 해녀를 차지해서 돌보아주겠다고 한다. 안씨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위하고 어업 수호신으로 위하여 섬기기 시작한다.

3 특징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대표적인 전승에 속한다. 제주에서 육지로 여행하는 남자의 뒤를 따라온 처녀신이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사례에 속한다. 이 본풀이는 새룻당의 당신본풀이이기도 하다. 조상신앙이 당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풀이이기도 한 셈이다.

4 핵심어

안씨 선주, 제민창, 조상신, 처녀신, 뱀, 새룻, 당신본풀이, 칠년대한, 아가씨, 광풍, 어부, 해녀

5 원전 서지사항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